초록빛 낭만의 진수를 보여주다

대체불가 무주산골영화제
실 관객수 3만 2천여 명 기록
4박 5일 간의 영화소풍 마쳐
관객 위한 영화제 호평 이어져

올해로 7회를 맞으며 많은 기대와 관객들을 불러 모았던 산골영화제가 대자연에서 즐기는 초록빛 휴양영화제, 비교불가 대한민국 대표 낭만영화제, 대체불가 산골영화제라는 평을 얻으며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 기간(4박 5일) 중 이틀이나 비가 내리면서 4편의 야외 상영이 취소됐음에도 관객 수는 예년에 비해 약 3천여 명 이상 늘어난 3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최 모 씨(28)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과 자유로움, 여유 등 다른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라며 "여기에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의 작품성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들의 특별함까지 더해져 매년 기다리고 또 찾게 된다"라고 전했다.

김 모 씨(39, 부산)는 "무주산골영화제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기기에 오히려 부담이 없는 영화제"라며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와 이벤트가 운영되는 키즈스테이지가 생겨서 여러모로 만족도도 높았고 역시 산골영화제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25개국 97편(우천으로 야외영화 4편 취소)의 영화가 걸렸던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작품성 있는 영화는 물론, 어린이 전용관(키즈 스테이지) 운영, 치매 친화 영화상영 등의 관객 배려, 별밤 · 산골소풍 등 참신함이 돋보이는 이벤트로도 화제를 모았다.

조민재 감독의 〈작은빛〉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에 상영됐던 10편의 영화 중 뉴비전상(대상)과 영화평론가상(신설)을 동시 수상해 찬사를 받았다.

뉴비전상 심사위원인 이동하(영화사 레드피터 대표), 장률(〈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감독), 정성일(영화평론가, 영화감독)은 "작은 이야기로 모든 등장인물의 마음을 마법처럼 담아낸 영화"라고 전했으며,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인 김병규, 정지혜, 홍은미 평론가는 "시작과 함께 우리를 긴장시키며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영화"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관객들이 직접 선택한 무주관객상은 강상우 감독의 〈김군〉이 수상했다. 〈김군〉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관객 투표를 통해 관객상 수상작을 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영화와 힙합이 만나 역대 가장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일으켰던 개막작 〈불가사리〉 힙합 리부트(feat. MC 메타)'의 호응은 영화제 기간 내내 이어졌으며 출연작 상영과 전시, 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넥스트 액터-박정민'도 큰 인기를 모았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던 어린이 전용관 '키즈스테이지'에도 많은 가족 단위 관객들이 몰렸으며 인형극과 김영만 아저씨의 색종이 접기 등 이벤트 프로그램에 어린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치매친화 영화상영 시간에는 〈시집가는 날〉을 준비해 무주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도 치매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특별함을 선사했다.

산골·별밤소풍은 무주군의 지역성 특성을 연계시켜 높인 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 서식지로 떠나는 신비탐사와 마을로 가는 영화관-향로산에서 즐기는 반디별 찾기가 무주산골영화제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이외에도 가수 김필과 소란, 옥상달빛, 십센치의 공연과 뮤즈그레인의 무성영화 연주가 흥내낼 수 없는 운치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우 이천희와 동생 이세희 형제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와 함께 했던 하이브로우존 낭만스테이지, 유어마인드와 함께한 산골책방 등도 휴식 공간으로서 찬사를 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조지훈 부집행위원장 겸 프로그래머는 "영화제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영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셨고 호응해주셨고, 만족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육성팀 김병옥 팀장은 "무주가 활기로 가득차고 젊어지는 때가 바로 산골영화제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고 보다 만족스럽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올해 영화제를 비롯해 곳곳을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한 9개 상영관에서 25개국 97편의 영화와 공연, 토크,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

한누리 전당서 14일 클래식 열린음악회 무료 공연

장수군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 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주관으로 '클래식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120년 전통의 체르니우치 주립 교향악단인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테너 김산기, 소프라노 에카테리나 킴의 협연, 장수리조이스 콰이어, 장계 반올림색소폰동호회, 번암색소폰 동호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연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19시부터 20시 20분까지 80여분간 펼쳐진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공연으로 수준 높은 교향악단과 지역의 음악동호인들의 협연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공연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연을 선보여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군, 세계적 영상촬영 메카 우뚝

세계적 동영상 제공업체 넷플릭스, 킹덤1 이어 킹덤2 부안서 촬영

부안군이 세계적 영상촬영의 메카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부안군은 세계적인 동영상 제공업체인 넷플릭스(Netflix)가 드라마 '킹덤1'을 부안에서 촬영했으며 넷플릭스가 전 세계인에게 제공한 '킹덤1'의 인기가 대단해 이달 말부터 부안에서 '킹덤2'를 촬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에서 촬영한 '킹덤1'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한국의 왕궁, 양반가 및 평민가 등 전통가옥을 정밀하게 재현한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위치해 있어 한국의 전통가옥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해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개장한 부안영상테마파크는 그동안 대략 150여편의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하며 새롭게 영상촬영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최근에 촬영한 영화 및 드라마는 '킹덤' 외에 '변산', '미스터 선샤인', '해치', '녹두꽃' 등이 있다.

이처럼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넓은 면적에 양반가와 평민가 등 다양한 종류의 세트장을 철저한 고증을 받고 설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근정전 세트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만 설치돼 있으며 그 규모와 정교함은 이미 영화촬영자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양반가와 평민가 세트장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주거시설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자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은 영상테마파크 외에도 영상촬영 장소가 무궁무진하다"며 "예를 들면 이준익 감독의 영화 '변산'에서는 부안의 노을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 이처럼 어느 곳 하나 영상촬영에 빠지지 않는 부안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 영상촬영의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내일부터 김계신 개인전 열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김계신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그룹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2, 2003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북미술대전 동상(1980), 특선(1984), 최우수상(1985, 86, 88) 등을 수상하였으며, 작품은 정부미술은행(과천현대미술관), 제주로뎀하우스에 소장되어 있다.

원광대학교·군산대학교 강사, 목우회,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현대조형미술대전, 평화미술대전,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목우회, 한국미협, 강동미협, BARA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과 현대조형미술대전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김계신작가 - 감람나무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